2 칼뱅의 「교회개혁의 필요성」에 나타난 종교개혁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박경수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1. 서 론

종교개혁자 장 칼뱅(Jean Calvin, 1509-1564)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론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실제로 루터(Martin Luther)나 츠빙글리(Huldrich Zwingli) 같은 1세대 종교개혁자들은 로마가톨릭의 교회론과 구별되는 프로테스탄트의 교회론을 만들어 낼 여유가 없었고 또 그럴 의지도 없었다. 가톨릭의 사제였던 그들에게는 로마교회가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교회를 개혁하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개혁된 로마가톨릭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시작된 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로마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분리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자,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위한 독자적인 교회론이 요청되었다. 이 필요성에 부응한 사람이 바로 칼뱅이다.

제2세대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이 왜 로

마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정당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이런 절박한 필요성에서 나온 글이 바로 1543년 출판된 「교회개혁의 필요성」이다. 칼뱅은 이 저작에서 로마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서, 하나님의 진리에 토대를 두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라고 대답한다. 그는 이 글에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분파가 아니라 참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칼뱅의 교회론은 로마가톨릭주의자들의 비난에 대한 의미있는 변론인 동시에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위한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칼뱅이 프로테스탄트의 교회론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저명한 칼뱅학자 맥닐(John McNeill)은 그에게 "교회 교사"(doctor ecclesiae)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1]

칼뱅의 「교회개혁의 필요성」은 당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의 통일을 위해 전념하고 있던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를 5세에게 바치는 진지한 공적 권고문이었다. 이 문서는 매우 잘 정돈된 형식으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대의를 구체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필자는 칼뱅의 이 글을 자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칼뱅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에게 가해졌던 분파주의자라는 비난에 대해 어떤 항변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16세기 당시 로마가톨릭과 프로테

1) John T. McNeill, "John Calvin : Doctor Ecclesiae,"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ed. Donald K. McKim (Eugene, OR :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8), 12. 칼뱅의 교회론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Herman J. Selderhuis, "Church on Stage : Calvin's Dynamic Ecclesiology," *Calvin and the Church*, ed. David Foxgrover (Grand Rapids : Calvin Studies Society, 2002)를 참고하라.

스탄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필자는 먼저 「교회개혁의 필요성」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이어서 그 내용을 중요한 주제별로 정리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 글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2. 「교회개혁의 필요성」의 역사적 배경[2]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는 '통합된 유럽'이라는 그의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분열과 싸움을 중단하고, 통합되고 일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상 그는 로마가톨릭의 편에 서 있었지만 투르크족과 프랑스의 위협에서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협조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차례의 회담을 통해 가톨릭 신자들과 프로테스탄트 신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적대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목적으로 카를 5세는 1539~1541년에 일련의 종교회의들을 개최하였다. 라이프치히 회담(1539년 1월), 프랑크푸르트 회담(1539년 4월), 하게나우 회담(1539년 6월과 7월), 보름스 회담(1540년 10월), 레겐스부르크 회담(1541년 4월과 5월) 등이 바로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종교회의들은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카를 5세는 이후 좀더 본격적으로 교회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슈파이어 회의를 소집하였다. 황제가 이 회의를 소집한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종교적 분쟁이 계속된다면 프로테스탄트 진

2) 이런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J. J. Steenkamp, "Calvin's Exhortation to Charles V (1543)," *Calvinus Sincerioris Religionis Vindex : Calvin as Protector of the Purer Religion*, ed. Wilhelm H. Neuser and Brian G. Armstrong (Kirksville, MO :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97), 309-314를 참조하라.

영에 속한 군주들의 관심이 프랑스와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멀어지게 되리라는 점이었다.[3] 당시 프로테스탄트 진영은 슈파이어 회의에 참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서로 의견이 갈려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그 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프로테스탄트 측에서 대항적인 성격의 회의를 소집해 개최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또다른 사람들은 슈파이어 회의에 참여하여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을 알리고 전파하는 무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

이런 상황에서 1543년 10월 25일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 마르틴 부처(Martin Bucer)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는데, 그 편지에서 부처는 1544년 2월에 열릴 예정인 슈파이어 회의에서 로마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칼뱅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칼뱅은 현재 황제와 교황 사이에 정책 차이가 있느니만큼 어쩌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와 영주들이 교황청과의 관계를 끊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지지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게 되었다.[5] 이러한 희망이 칼뱅으로 하여금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작성하도록 만들었다.

3. 「교회개혁의 필요성」의 내용

칼뱅은 황제와 영주들에게 로마 교황이 소집하는 공의회 대신에 독일 국가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 개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정치권력에 의한 공의회 소집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되어 온 방법임을 지적하였다. 칼뱅의 「교회개혁의 필요성」은 매우 쉽고 간결

3) John Calvin,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ed. J. K. S. Reid (London : SCM Press Ltd., 1954), 183.
4) J. J. Steenkamp, "Calvin's Exhortation to Charles V (1543)," 310-311.
5) John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205.

한 문체로 쓰였는데, 그것은 신학의 비전문가인 황제와 영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얼마나 절실하고 시급했는지를 보여 주려는 목적으로 칼뱅은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서론에서 칼뱅은 그가 이 글을 쓰는 세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었다.

> 첫째로, 나는 우리로 하여금 치료책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해악들을 간략하게 열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나는 개혁자들이 채택한 구체적인 치료책들이 매우 적절하고 건전한 것이었음을 보여 줄 것입니다. 셋째로, 나는 문제가 당장 시정해야 할 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팔짱을 끼고 한가로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6]

칼뱅은 먼저 로마교회가 심각하게 병들었음을 지적하면서 교회 내에 창궐한 해악들을 열거한다. 그 후 그는 교회의 치명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적절한 치료책들을 채택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지, 또한 왜 황제는 개혁자들과 함께 지금 즉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 해악들과 치료책들

칼뱅은 「교회개혁의 필요성」에서 예배, 교리, 성례, 교회정치 영역에 만연해 있는 로마교회의 심각한 해악들을 비판하였다. 그런 다음 개

6)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Tracts and Treatises on the Doctrine and Worship of the Church*, Vol. 1, tr.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8), 126.

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 전통의 표준에 따라 채택한 치료책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첫째로, 칼뱅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타락을 지적하였다.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를 요구하신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합당한 경외를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칼뱅이 볼 때 당시 로마교회의 예배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거리가 멀었다. 칼뱅은 먼저 성인들에 대한 숭배를 비판한다.

> 말로는 그들이 모든 선한 것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떠벌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한 미덕들의 절반을 아니 그 이상을 강탈하여 성인들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 성인들이 지고하신 하나님의 동료로 임명되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할이 성인들에게 분할되고 있습니다.[7]

칼뱅에 따르면 당시의 가톨릭주의자들은 성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도 되는 양 온갖 복을 준 성인들을 칭송하였다. 성인들, 심지어 그들의 뼈, 의복, 신발, 화상(畵像) 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어떤 교황주의자들은 둘리아(dulia), 라트리아(latria), 하이퍼둘리아(hyperdulia) 같은 교묘한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미묘한 변명들을 늘어놓았다.[8] 하지만 칼뱅은 이런 변명들을 말장난이라고 비판하였다. 칼뱅은 로마교회의 예배를 "제 멋대로의 예배"(will worship)[9]로 간주하였다. 그것은 예배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래되었다기보다 자신들의 의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뱅은 로마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예배의 형식들이 부패되었고 변조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칼뱅과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이와 같은 우상숭배와 미신에 대항하여 로마교회의 부패한 의식들을 버리고, 보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재건하기를 원했다.

둘째로, 칼뱅은 가톨릭 교회에 의해 구원의 교리가 심각하게 왜곡되었음을 비판하였다. 로마교회로부터 개혁자들을 분리시킨 가장 논쟁적인 주제는 칭의(justification)에 대한 교리,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인지 아니면 행위로인지를 둘러싼 문제였다. 칼뱅에 의하면 로마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 영생을 획득하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이다. 선행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어떤 구원의 소망도 무모하고 뻔뻔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은 그저 죄를 용서하시는 무상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행함으로써 가능하다. 선행은 영원한 구원을 위한 공덕이다."[10] 칼뱅은 선행이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로마교회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뱅도 구원에 있어서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한 칭의"라는 교리가 가지는 절대적인 지위를 확신하였다. 인간이 의롭게 되고 구원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한, 칼뱅은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였다.

셋째로, 칼뱅은 로마교회 안에서 성례가 끔찍하게 타락했다고 개탄

7)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29.

8)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31. "다양한 종류의 경배가 있다. 성인들이나 그들의 유골이나 화상에게는 둘리아(dulia)의 영예를 돌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라트리아(latria)의 영예를 돌리고, 모든 성인들보다 뛰어난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하이퍼둘리아(hyperdulia)의 영예를 돌린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최상의 공경인 '흠숭지례'(欽崇之禮)를, 마리아에게는 '상경지례'(上敬之禮)를, 성인들에게는 '공경지례'(恭敬之禮)를 구별하여 드린다는 주장이다.

9)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29.

10)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35.

하였다. 먼저 그는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일곱 성례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만 성례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칼뱅의 눈에 비친 로마교회의 세례와 성만찬은 끔찍하게 부패했을 뿐 아니라 거의 폐기되어 버린 정도였다. 세례는 "불필요한 첨가물들"로 가려졌고, 성만찬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의식들로 인해" 퇴락되었다.[11] 칼뱅은 특히 로마교회의 미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외적인 행위들로만 가득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또한 미사가 희생제사라는 가톨릭 교회의 관념에 반대하였다. "도대체 미사와 참된 주의 만찬에 무슨 유사점이 있습니까? …… 그리스도께서 이런 희생제사에 대해서 어디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고 명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받으라'(taking)는 주님의 말씀을 '바치라'(offering)는 말로 변조하였습니까?"[12] 칼뱅은 미사와 성만찬 사이에 아무런 공통점도 없음을 주장하였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모두에게 잔을 주면서 마시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교회가 자의적으로 성도들에게서 잔을 마실 권리를 박탈해 버렸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칼뱅과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성례를 거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했던 초대교회의 관습을 재정립하였으며, 또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신자들이 성만찬에서 떡뿐만 아니라 잔을 받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칼뱅은 로마교회 안에 있는 교회정치의 수많은 결점들을 지적하였다. 그는 성직매매, 사제들의 타락, 교회정치 형태의 기형, 성직자 독신제도의 불순함 등의 오류들을 논의하였다. 무엇보다 칼뱅은 영혼에 대한 폭정을 심각하게 다루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지독한 해악은 그들이 지독한 폭정, 다시 말해 영혼에 대한 폭정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13] 만일 누군가가 이런 지독한 폭정에 대해 반대하는

11)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37.
12)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37-138.

태도를 취하기만 하면, 로마교회는 즉시로 그 사람을 이단으로 혹은 분파주의자로 매도하여 버렸다. 또한 교황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초대교회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사도들의 권위를 계승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칼뱅에 따르면 그들은 "사도들이나 혹은 초대교회의 거룩한 교부들과 어떤 유사점"[14]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칼뱅의 관점에서 볼 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마땅히 이어져야 할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적 신앙과 사도적 진리였다. 직위의 계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계승이 중요한 것이다.

칼뱅은 개혁자들에 의해 주도된 종교개혁 운동이 예배, 교리, 성만찬, 교회정치에 있어서 로마교회의 오류들을 비판하며 철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른 순수하고 온전한 형태의 예배, 교리, 성만찬, 교회정치를 확립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었다고 주장하였다.

2) 필요성과 긴급성

칼뱅은 로마교회의 이러한 해악들로 인해 종교개혁은 필연적으로 요청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칼뱅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은 로마가톨릭 교회의 비참한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건이었다. 개혁자들은 끔찍한 신성모독과 소름끼치는 우상숭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자들은 결코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만일 그들이 침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더라면, 소위 교회의 평화는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신성모독과 불의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에 따른 위장된 평화일 뿐이었다.[15] 칼뱅은

13)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42-143.
14)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72.
15)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84.

이렇게 말한다. "말해야만 할 그런 때에 만일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에 대해 불경하고 불충한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임박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16] 따라서 칼뱅은 하나님의 영광이 신성모독에 의해 위협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분노와 열심에 불타야만 한다고 믿었다.[17]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불경건한 신성모독으로 공격을 받는 일은 결코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18]라고 말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이 이와 같은 신성모독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직무유기요, 무관심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칼뱅은 프로테스탄트 개혁 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예를 들었다. 사악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난하였지만, 엘리야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왕상 18 : 18)고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이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된 진짜 이유는 엘리야의 정당한 항의 때문이 아니라 아합의 악한 통치 때문이었다. 칼뱅은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에 관한 격렬한 다툼의 원인을 온갖 악평으로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전혀 공정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혹 엘리야에게 그런 비난을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엘리야와 우리는 동일한 항변을 하고

16)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94.
17)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94-195.
18)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98.

있는 것입니다."[19]라고 말한다. 가녹지(Alexandre Ganoczy)가 지적한 것처럼, 칼뱅의 개혁은 예언자적 관점에서 설명되어야만 한다. 개혁(reformation)은 여러 가지 "개악들"(deformations)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의 운명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예언자적 항변이었다.[20] 개혁자들은 로마교회의 악들에 항거하여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칼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랐다. 칼뱅에게 종교개혁이란 현재의 교회를 "재건설하려는 원대한 과업"[21]이었으며, 이것은 곧 참된 교회의 회복 운동이었다.

칼뱅은 또한 개혁 운동이 얼마나 긴급한 과제인지를 강조하였다. 16세기 초에 교회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방치할 경우에는 전체 교회가 붕괴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비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주의자들은 전체 교회 공의회를 핑계로 교회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잘못된 것들을 긴급하게 치유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교황주의자들의 공의회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 오히려 칼뱅은 교회개혁의 과업에 대해 황제와 영주들에게 호소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

> 지극히 높으신 황제 폐하와 탁월하신 영주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확실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목자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곤궁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재난으로 고통을 받아 멸망하기 직전에 놓이게 되어 이제 당신들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

19)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84.
20) Alexandre Ganoczy, *The Young Calvin*(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87), 8.
21) Alexandre Ganoczy, *The Young Calvin*, 23.

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확고하고 분명한 충성심을 증거할 기회를 제공해 주셨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22]

교회의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 칼뱅은 황제와 영주들에게 교황주의자들의 공의회 대신에 국가의 위정자들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회의를 개최하여 교회를 도우라고 호소했던 것이다. 동시에 칼뱅은 만일 황제와 영주들이 이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지체한다면 신성로마제국 안에서 가시적인 교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23] 칼뱅에게 교회의 개혁은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 것이다.

3) 분열과 일치

칼뱅이 「교회개혁의 필요성」에서 다룬 중요한 또다른 주제가 분열과 일치의 문제이다.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결점을 개선하려는 시도들은 분열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교황주의자들이 개혁자들에게 가한 가장 심각한 비난은 바로 개혁자들이 교회의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비난에 대해 칼뱅은 "우리는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며, 교회의 교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24]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였다. 칼뱅은 예레미야의 예를 들어서 자신이 로마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지금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처럼 예레미야도 당시의 타락한 거짓 제사장들의 무리들에 대항하여 투쟁했다는 것이다. 칼뱅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우리 편에 있다."[25]고 주장하였다. 만일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로써 교황의 권위에 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분파주의자들로 간주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예레미야도 분파주의

22)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228.
23)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231.
24)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211.
25)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212.

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예레미야를 분파주의자라고 부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종교개혁자들도 결코 분파주의자일 수 없다. 칼뱅은 진짜 분파주의자들은 개혁자들이 아니라 로마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칼뱅에게 있어서 참된 교회와 교회의 일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매여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칼뱅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변할 수 없는 요점이 되도록 합시다. 순수한 교리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일치가 존재하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26]라고 말했다. 교회 일치에 있어서 순수한 교리는 견고한 토대와도 같았다. 그러므로 칼뱅은 만일 로마교회가 자신들의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자신들 안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뱅은 "만일 어떤 종류의 가르침이든 일치만 되면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사악한 자들의 불경건한 파당을 구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27]라고 묻는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야말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지표이다. 여기에서 칼뱅은 교회 일치의 원칙들 중 한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교회의 일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일치여야 한다는 것이다. 칼뱅은 교회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참된 교회와의 연속성을 재확립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4. 「교회개혁의 필요성」의 결과

칼뱅의 「교회개혁의 필요성」은 당시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 종교개

26)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215.
27)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215.

혁의 대의에 대한 탁월한 설명이라고 열렬히 환영을 받았다. 단크바르(Willem F. Dankbaar)는 칼뱅의 「교회개혁의 필요성」이 카를 5세로 하여금 슈파이어 회의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공의회의 개최를 약속하도록 만들었으며, 이것이 교황 바오로 3세가 트렌트공의회를 소집하도록 촉발했을 것이라고 암시하였다.[28] 「교회개혁의 필요성」은 카를로 하여금 프로테스탄트 개혁운동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설득하였고, 이로 인해 1544년 6월 10일 슈파이어 회의에서 국가 주도의 공의회 개최를 약속 받을 수 있었다. 황제의 이런 결정에 대해 교황 바오로 3세는 1544년 8월 24일 "아버지로서의 충고"(Paternal Admonition)라는 교서를 통해 혹독한 비난을 가하였다. 교황은 황제가 임시변통으로 프로테스탄트와 타협에 이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면서, 자신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국가 주도의 공의회를 약속한 것을 거세게 비난하였다.

칼뱅은 곧바로 교황의 교서에 자신의 비평적 견해를 덧붙여 출판하였다.[29] 칼뱅은 비평을 통해 교회의 책임자들이 그 과업 수행을 잘못할 때 그리스도인 위정자들은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0] 그는 독자들에게 초대교회의 공의회들이 교황들이 아니라 황제들에 의해 소집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적어도 칼뱅의 「교회개혁의 필요성」이 카를 5세로 하여금 국가 주도의 공의회를 약속하도록 만들었고 바오로 3세의 교서를 촉발시켰음은 확실한 듯하다.

그러나 칼뱅의 「교회개혁의 필요성」이 트렌트공의회의 소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틴캠프(J. J. Steenkamp)

28) J. J. Steenkamp, "Calvin's Exhortation to Charles V (1543)," 312-313.
29) "아버지로서의 충고"와 이에 대한 칼뱅의 비평에 대해서는 *Tracts and Treatises on the Doctrine and Worship of the Church*, Vol. 1, 235-286을 보라.
30) W. de Gr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 An Introductory Guide*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93), 161.

도 트렌트공의회가 1544년 9월 18일의 크레스피 평화조약(Peace Treaty of Crespy), 그리고 특히 1544년 9월 19일에 카를 5세와 프랑수아 1세 사이에 맺어진 뫼동 비밀조약(Secret Treaty of Meudon) 때문에 소집된 것으로 믿고 있다. 카를 5세와 프랑수아 1세는 비밀 회담에서 "황제가 소집하는 공의회를 트렌트, 캉브레, 메츠 중에서 개최하기로"[31] 합의하였다. 아마도 이런 정치적인 흐름에 대해 위기를 느낀 교황은 급히 교황 주도의 트렌트공의회를 소집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스틴캠프에 따르면 뫼동 비밀조약이야말로 트렌트공의회 개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트렌트공의회의 개최는 유럽 내에서 로마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황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칼뱅의 「교회개혁의 필요성」은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강력하게"[32] 주창한 문서였다. 그는 이 글을 통해서 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증언하였다. 그리고 적어도 황제의 태도에 변화를 일으켰고, 교황이 새로운 교서를 발표하도록 만들었다. 테오도르 베즈(Théodore Bèze)는 칼뱅의 이 글을 "당대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저술"[33]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였다.

31) J. J. Steenkamp, "Calvin's Exhortation to Charles V (1543)," 313 : "뫼동 비밀조약의 중요한 결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프랑스의 왕 프랑수아는 독일에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를이 종교적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로, 이 목적을 먼저는 설득을 통해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해 투르크족과 싸우기 위해 황제에게 빌려 준 군대를 프로테스탄트에 대항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셋째로, '황제'가 소집하는 공의회를 트렌트, 캉브레, 메츠 중에서 개최한다. 교황은 이 결정에 전혀 관계되지도 않았으며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황의 수위권에 대한 황제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32) Thomas F. Torrance, "Historical Note," *Tracts and Treatises*, Vol. 1, 121.
33) J. K. S. Reid, "Introduction,"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183.

참고문헌

Calvin, Joh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Tracts and Treatises on the Doctrine and Worship of the Church*. Vol. 1. tr.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8.

_____.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ed. J. K. S. Reid. London : SCM Press Ltd., 1954.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559). ed. John T. McNeill, tr. Ford L.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54.

Ganoczy, Alexandre. *The Young Calvin.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87.

Greef, W. de. *The Writings of John Calvin : An Introductory Guide*.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93.

McNeill, John T. "John Calvin : Doctor Ecclesiae."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ed. Donald K. McKim. Eugene, OR :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8.

_____.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Selderhuis, Herman J. "Church on Stage : Calvin's Dynamic Ecclesiology." *Calvin and the Church*. ed. David Foxgrover. Grand Rapids : Calvin Studies Society, 2002.

Steenkamp, J. J. "Calvin's Exhortation to Charles V (1543)." *Calvinus Sincerioris Religionis Vindex : Calvin as Protector of the Purer Religion*. ed. Wilhelm H. Neuser and Brian G. Armstrong. Kirksville, MO :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97.